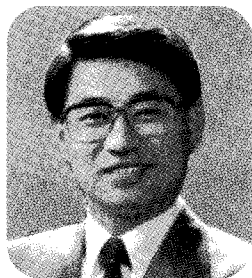


# 2001년 소 수입개방과 낙농육우산업

## 수입개방의 영향과 대책 -

집  
중  
기  
획



신 승 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

### 1. 머리말

**수** | 입개방 문제는 지난 1993년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서 여러 대책과 대응방안들이 마련되었고 일부는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2001년 수입개방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2001년에 우리나라 축산업의 보루와 같은 소(생우)와 쇠고기에 대한 시장이 관세화에 의해 완전 개방이 되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수입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안으로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유제품의 수입량도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분유제고량도 적정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실정

이다. 2001년 생우와 쇠고기에 대한 완전 시장개방, 수입유제품 증가가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한다.

축산물 가운데 수입이 가장 먼저 자유화된 품목은 우유와 유제품이다. 탈지분유, 전지분유, 유장분말은 1995년 1월에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며, 버터밀크, 연유, 유당 등은 1996년에 수입이 자유롭게 되었다.

이후 UR 협상결과에 따라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냉동육이 1997년 7월부터 관세화에 의해 자유화되었으며, 쇠고기는 1994년부터 관세율과 쿼터물량에 의해 개방되었다.

생우와 쇠고기는 내년 2001년부터 관세율 41.2%로 시장이 완전 개방되며, 매년 0.4%씩 관세율은 인하되어 2004년에는 관세율이 40%까지

낮아진다. 2004년 이후에 대한 개방내용은 차기 WTO 협상에서 검토될 것이다.

## 2. WTO 체제하의 낙농육우산업의 현황과 전망

국내 낙농육우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간략히 살펴 본 후에 시장개방의 파급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한육우 사육두수는 1989년에 약 150만두를 최저점으로 하여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 270만두를 최고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였다. 이는 IMF 관리체제 이후에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비 증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소산지가격 하락, 2001년 이후의 생우와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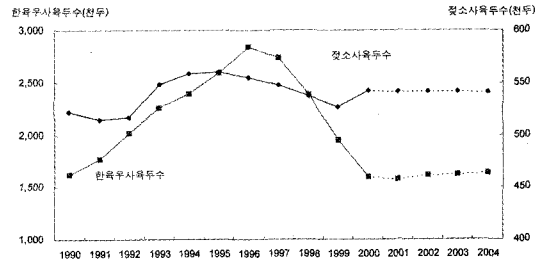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변식기반인 가임암소의 단기비육 도축으로 이어져 사육두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 9월에는 171만두가 되었다. 젖소사육두수는 경제가 발전하고 원유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IMF 위기 이전에 약 56만두까지 증가한 젖소 사육두수는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소폭 감소하였다가 농가원유수취가격 상승, 사료비 하락에 따른 낙농경영여건 안정으로 다시 증가하여 2000년 9월 현재 54만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사육두수는 IMF를 겪으면서 급격히 변하였다. 사육두수 변화에 따라 쇠고기와 원유의 국내 공급상황도 변화하고 있다. 쇠고기 생산량은 1990년 이후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량도 점차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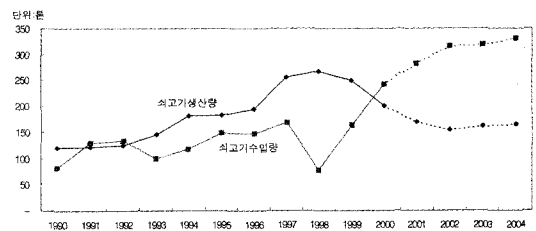
1993년 UR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쇠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IMF 관리체제 기간중인 1998년에는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수입량은 증가추세로 바뀌었다. 쇠고기의 자급률은 UR 협상 이후 약 50

〈그림 1〉 한육우와 젖소 사육 추세 및 전망



※ 자료 : 농림부 가축통계(2001년 이후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그림 2〉 쇠고기 생산/수입 동향과 전망



※ 자료 : 농림부(2001년 이후는 추정치)

~60% 대를 유지하였다.

원유의 생산량과 수입량은 IMF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수입이 증가하면서 원유의 자급률은 점차 하락하였으며 1998년 IMF로 수입유제품의 감소로 자급률은 88%로 일시 상승하였으나, 1999년에는 수입유제품 증가로 원유자급률이 83%까지 하락하였다.

국내 공급상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농가의 소득이다. 젖소 농가의 소득변화는 젖소의 두당 수익성에 달려 있다. 젖소사육에서 얻는 두당 조수익은 주수입원인 우유판매수입과 부수입으로 얻는 송아지판매수입과 기타수입으로 나뉜다.

우유판매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8년 이후에는 원유 농가수취가격 상승으로 350만원대를 넘어서게 되었다. 송아지판매수입은 한육우 산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1990년대에는 한육우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육우 산지가격이 하락하여 송아지판매수입도 점차 감소하였다.

1999년 들어 한육우 산지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표 1〉 젓소 두당 수익성 변화추이

(단위 : 천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우유판매수입	2,582	2,724	2,721	2,801	2,930	3,512	3,784
송아지판매수입	627	523	601	337	225	83	202
기타수입	28	26	22	10	12	35	40
조수입	3,237	3,273	3,344	3,149	3,166	3,630	4,027
경영비	1,700	1,762	1,875	2,036	2,208	2,373	2,307
총비용	2,923	2,853	3,058	3,291	3,473	3,168	2,997
소득	1,537	1,511	1,469	1,113	958	1,257	1,720
순수익	314	420	286	-143	-307	461	1,030

\* 자료 : 농림부 축산물생산비

주 : 1. 조수입 = 우유판매수입 + 송아지판매수입 + 기타수입 2. 소득 = 조수입 - 경영비

3. 순수익 = 조수입 - 총비용

송아지 판매수입도 증가하였다. 젓소의 두당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1997년까지는 점차 감소하였고 1998년 이후에는 농가원유수취가격 인상에 따른 경영여건 안정화로 젓소 두당 소득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10월 체세포수 페널티가 완화되면서 원유판매수입은 증가하였고, 사료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원유생산비가 하락하는 등 낙농여건이 크게 호전되었다. 그에 따라서 저능력우의 도태가 지연되었고 2000년 상반기 들어 사육두수는 소폭 증가하였다.

금년 3/4분기 들어서는 저능력우의 도태와 비육출하로 9월 현재 사육두수는 상반기보다 약간 감소한 54만 2천두이다. 2000년 원유생산량은 경영

여건 안정과 두당 산유량의 증가로 작년보다 약 8% 증가한 240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유제품 수입은 약 52만톤으로 작년에 비해 14%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년 원유 소비량은 작년에 비해 약 2%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어 연말 재고량은 13만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육우 사육두수는 2000년 현재 가임암소의 도축증가로 시장개방전에 이미 급격히 감소한 상태다. 따라서 2001년 이후에 수입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사육두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육두수 감소로 국내 쇠고기생산량이 소비증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량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쇠고기 자급률은 서서히 하락하여 30%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낙농의 경우에도 수입유제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산 유제품생산은 서서히 수입유제품으로 대체되고 국내원유생산량은 시유 형태로 소비될 전망이어서 원유 자급률 역시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수입개방에 따르는 파급효과

2001년도 생우와 수입쇠고기의 개방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수입자유화가 된 일본의 상황을 검토한 후 일본에서의 파급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로 수입쇠고기의 수입패턴에는 변화가 없었는지, 수입개방이 일본 소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았다.

둘째는 수입량 증가가 일본내 쇠고기 및 소의 가격구조와 농가소득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최근 들어 2001년 수입개방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2001년에 우리나라 축산업의 보루와 같은 소(생우)와 쇠고기에 대한 시장이 관세화에 의해 완전 개방이 되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수입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안으로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유제품의 수입량도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분유재고량도 적정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했던 일본은 1991년 4월부터 관세화로 쇠고기 수입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 수입자유화가 시작되는 해에 일본은 7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한 데 비하여 한국은 41.2%라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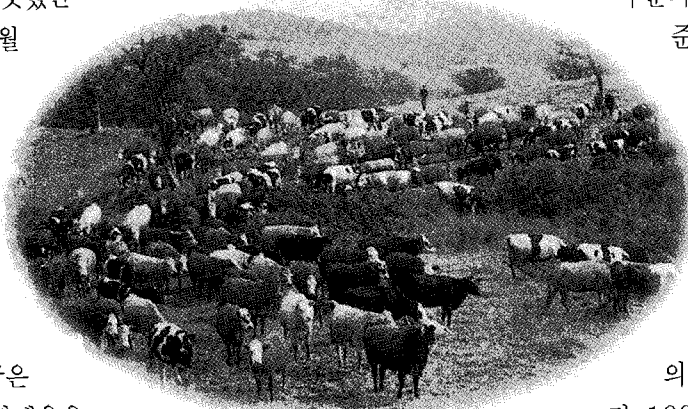
또한 일본은 분기별로 전년도에 비하여 수입물량이 117%를 상회하게 되면 관세율을 50%로 인상할 수 있는 관세긴급조정조치(SG)를 인정받았다. 일본은 냉동쇠고기에 대하여 95년 8월~96년 3월, 96년 8월~97년 3월까지 2차례의 긴급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수입물량 급증에 대한 긴급조치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차기 협상에서 수입물량 급증에 대한 최소한의 긴급조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수입개방 이후에 일본시장에서는 수입패턴의 변화가 있었는지, 소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수입쇠고기는 크게 곡물비육쇠고기와 목초비육쇠고기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목초비육쇠고기가 곡물비육쇠고기에 비해 지방이 적고 육질도 떨어져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고급육이란 곡물비육과 냉장육의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데 수입자유화 이후 수입량의 증가와 함께 고급육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북미산 곡물비육 쇠고기의 수입증가로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가격적인 압력이 강해졌다. 쇠고기의 수입량 확대는 수입시장 완전개방 시작 년도인 1991년보다 2년 앞선 1989년부터 본격화되었고 재고량도 증가하였다.

수입자유화 이후 수입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생산량은 수입자유화 이전 수준과 비슷한 40만톤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값싼 수입육의 일본내 유입으로 쇠고기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였다. 일본 쇠고기 자급률은 수입 개방 전인 1988년의 59%에서 점차 낮아져 1999년에는 36%까지 하락하였다.

다음으로 수입개방이 가격과 소득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관세율이 매년 낮아짐에 따라 국산 지육가격이 계속 하락하였다. 가격하락은 수입육과 품질이 비슷한 유우(젓소)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등급이 낮을수록 가격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수입육에 비해서 품질이 월등히 높은 화우(일본소)의 상등급은 자유화의 영향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물량은 적지만 화우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고급육이 수입됨에 따라 가격은 소폭 하락하였다.

유우육(젓소고기)은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수입육이 젓소고기와 품질이 비슷하여 경쟁관계에 있는데 젓소고기가 수입육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지육가격의 하락은 송아지가격 하락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번식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특히 젓소 수송아지 육성농가의 송아지 육성우 1두당 소득은 (-)가 되기도 하였다.

2001년 이후의 한국은 수입개방 이후 낙농육우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앞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쇠고기의 경우 지금까지 3~4 등급의 값싼 냉동육이 주로 수입되었지만,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앞으로는 2등급(Choice) 수준의 냉장육이 국내로 많이 수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한우고기는 과거와는 달리 품질 및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입육과 경쟁관계에 있는 젓소고기의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라 사육농가의 소득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젓소육우 사육농가의 피해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낙농육우산업은 쇠고기 뿐만 아니라 생우 수입자유화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큰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축하기보다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비용면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큰 소보다는 송아지를 수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현지의 송아지 가격은 국내 송아지가격의 1/4 수준이지만 중간 제비용(관세, 부대비용, 이윤)을 고려하면 수입송아지의 가격은 100~11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되는 생우가 국내에서는 한우가 아니라 육우로 취급받기 때문에 국내 홀스타인 수소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육우 송아지 가격(2000년 8월 47만원)은 한우 송아지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생우 송아지 수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수입제비용은 일회 수입규모에 따라 크

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수입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 4.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응방안

2001년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농가소득안정화를 통한 국내 축산물 수급 안정화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 대응방안들을 강화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대응방안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산지생산단계에서는 한우와 낙농육우 사육농가들의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추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축산물 수급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소사육농가의 경우 생산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축비를 낮추어야 한다. 가축비의 절감은 번식기반 확충을 통한 사육두수 증대로 가능하다.

최근의 수입개방을 앞두고 암소도축이 성행하고 그 결과로 번식기반이 많이 약화되었다. 그에 따라 번식기반 확충을 위해 '다산장려금제'와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암소 단기비육이 산차를 증



수입육과 경쟁관계에 있는 젓소고기의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라 사육농가의 소득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젓소육우 사육농가의 피해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낙농육우산업은 쇠고기 뿐만 아니라 생우 수입자유화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큰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축하기보다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비용면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큰 소보다는 송아지를 수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시키는 육성장기비용에 비해 높은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비육 유형별 소득의 격차를 보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산차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장려금 및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는 젓소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수입쇠고기가 젓소고기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젓소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가격경쟁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품질경쟁력 향상이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고품질 한육우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료의 다량급여가 있어야 한다.

현재 조사료에 대한 자급률은 낮은 상태로 조사료에 대한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고급육 생산과 품질의 균일성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는 종축개량이 필수적인데, 가축개량의 방향을 이전의 비육능력 확대에서 고품질 쇠고기 생산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거세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에 거세장려금 지급에도 거세우의

비용이 감소되고 있다. 이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장려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생산단계에서 고품질의 고기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유통/판매 단계에서 품질이 저하되거나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는 축산물 종합처리장(LPC)을 중심으로 생산, 도축, 가공, 판매기능을 연계하여, 보다 위생적이며 품질이 뛰어난 고급육을 유통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품질과 위생상태 못지 않게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힘을 써야 한다. 국산육에 대한 브랜드화를 추진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품질고급화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기반을 확보해야 하며, 브랜드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보다 다양한 유통 채널을 구축하여야 한다. 수입개방 이후 유통단계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수입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에 한국의 구분판매제도에 대해 WTO 패

## 집중기획 I

널에서 패소판결이 나옴에 따라 그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보다 철저한 지도와 감시가 필요하다.


낙농가도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비를 최대한 인하시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집유일원화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집유일원화 참여 낙농가 및 집유조합 등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 및 유통활성화자금 등 정책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집유권역의 효율적 조정으로 집유비용을 더 인하시켜야 한다.

집유일원화 확대를 위해서는 검사공영화 전면실시로 원유검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

여 낙농가 및 수요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생산비를 인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두당 산유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분유재고량의 증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두당 산유량의 증가는 자칫 분유재고의 과다 증가로 모든 낙농가 및 유업체의 경영여건을 압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비촉진 운동도 계속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의 낙농자조금제도를 통한 광고/홍보효과는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제고와 우유소비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낙농자조금 제도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생산자와 유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낙농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자연락처 : 02-962-7312〉

# 천연 미네랄 공급 소식

❖ 우리와 같은 집약 축산을 하는 여건에서는 각종 질병예방, 대사장애 해소, 산유량 증가와 유질 향상, 번식장애 해소 등을 위하여 천연미네랄의 급여는 필수적입니다.

### ❖ 아그리-민(AGRI-MIN)

마그네슘, 칼슘 등의 다량미네랄과 미량미네랄을 골고루 갖춘 제품으로 제1위내 pH조절제로 발효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며, 반전을 조절제로 미생물의 성장효율을 증가시켜 산유량 증가, 번식장애 해소와 각종 질병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필수 영양물질이다.

### ❖ 벤토나이트(BENTONITE)

미량미네랄과 최고의 완충제로 제1위내 pH를 조절하여 각종 효소의 증식과 활성화로 완전한 사료의 소화흡수와 산독증 예방과 강한 항병력을 갖게 한다. 높은 흡수율과 양이온 교환능력은 농약 등 유해물질과 독소를 제거하는 놀라운 능력과 고능력과 집약축산의 경쟁력을 갖게하는 필수 영양물질이다.

● 수입원 **한국 미네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75-9 해진빌딩  
TEL : (031)964-6367, H.P : 011-446-8252